

나주시,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쾌거'

혁신도시·혁신산단·영산강저류지에
2023년까지 기술 실증 인프라 구축
한전 등 13개 특구사업자 참여
DC배전망 등 신기술 개발 활성화

나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제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에서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지정사업(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실증)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란 4차산업시대 국가 성장 동력인

혁신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 테스트, 사업화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시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내년 1월부터 2023년 말까지 4년간 빛가람 혁신도시, 혁신산단, 영산강저류지 등(총면적 20km²)에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35kV급 MVDC(Medium Voltage Direct Current) 실증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MVDC 실증은 직류 공급(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에너지저장장치)과 직류 부하(전기차·디젤기·전기철도 등) 분야에 활용되는 사업으로 대규모 분산전원 연계 기술이다.
이 사업에는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주관으로 ▲핵심기기개발 ▲DC배전망 구축 ▲운영체계 구축 ▲표준화 및 BM도출 등 4개 분야에 한국전력을 비롯한 13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한다.

특구 사업자들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다양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시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비롯해 최근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사업 등 정부 주관의 에너지산업 분야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됨에 따라 에너지수도 건설을 위한 최적의 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더하게 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우리 지역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제약 없이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다"며 "특히 이번 MVDC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



진되면 향후 직류(DC)배전망 분야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귀농·귀촌인 안정 정착 위해 나주시, 영농 창업교육 실시

나주시는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창업교육을 실시했다.
나주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농업기술센터에서 10년 이내 귀농·귀촌인 40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인의 농업소득 증대 및 농촌생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영농 창업교육(중급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총 16시간 과정으로 ▲4차 산업시대 농산업 가치전략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농업재무회계 및 농업 경영 ▲귀농·귀촌 갈등관리 및 지원정책 등 체계적인 영농 활동을 위한 전문가 강연이었다.
특히 3일차 교육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 도입 및 소득창출을 목표로 고충군(농업기술센터 아열대관, 커피사관학교) 현장 교육이 진행됐다.
시는 귀농·귀촌인의 농업 소득 창출에 따른 농촌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인 영농기초기술교육 4개 과정(귀농입문반, 특용작물반, 과수·축산반, 노지채소·시설원예반)과 영농창업교육 2개 과정(초급반, 중급반)을 운영하고 있다.
나주시는 나주시 농촌진흥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농촌 적응 기간 단축은 물론, 나주 농업을 이끌어갈 원동력이자 농촌의 활력소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규 귀농인들이 농촌 정착 초기에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나주시 청년지원센터 내년 3월 개소...27일까지 명칭 공모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역량을 키워주고 청년 간 네트워크 거점으로 활용될 나주시 청년지원센터가 내년 3월 문을 연다.
나주시에 따르면 청년지원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559㎡ 규모로 옛 송월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년 금융복지센터와 문화공연장, 청년 취·창업 상담소, 세미나·스터디실, 공유주방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나주시는 오는 27일까지 센터 명칭을 공모한다.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올라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redmiffy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1명 50만원), 우수작(1명 30만원), 장려상(1명 20만원) 등 입상작을 선정, 시상금을 각각 수여할 계획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역량을 키워주고 청년 간 네트워크 거점으로 활용될 나주시 청년지원센터가 내년 3월 문을 연다.
나주시에 따르면 청년지원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559㎡ 규모로 옛 송월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년 금융복지센터와 문화공연장, 청년 취·창업 상담소, 세미나·스터디실, 공유주방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나주시는 오는 27일까지 센터 명칭을 공모한다.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올라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redmiffy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1명 50만원), 우수작(1명 30만원), 장려상(1명 20만원) 등 입상작을 선정, 시상금을 각각 수여할 계획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 농약 방제 '행잉 운반기' 전국 첫 개발 시연회

나주시가 시설하우스 및 과수원 농약 방제 작업 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행잉(hanging)운반기'를 전국 최초로 개발해 주목된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대기동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나주시마트농업연구회 회원 25명을 대상으로 '행잉 운반기를 활용한 농약 방제 시연회'를 가졌다. <사진>
행잉 운반기는 하우스 천정에 매달아 토마토, 오이 등 수확 작물을 모아 입구 쪽으로 옮기는 용도로 쓰이는 운반기에 방제 기구를 설치해 스마트폰으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구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그동안 시설하우스 농가는 장시간 무거운 살포기계를 들고 방제 작업은 물론 작·간접적인 농약물질 접촉으로 건강위험에 노출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행잉 운반기 설치비용은 시설하우스 200평 기준 약 100만원 상당으로 비교적 저렴해 향후 보급이 활성화되면 시설환경, 인력관리가 어려운 농가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농업분야 혁신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동력 절감형, 저비용 고효율화의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배움의 한 풀다...어르신 66명 성인문해교실 수료식



"이 나이에 학사모도 써보고, 잠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나주시 성인문해교실의 최고령인 공산면 봉곡마을 85세 김 모 할머니가 수료식에서 학사모를 쓰고 감격의 눈시울을 보였다.
나주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인문해교실 참여자 및 강사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성인문해교실 은빛배움터 수료식'을 개최했다. <사진>
성인문해교육은 올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지면 죽동마을 등 7개 마을의 어르신 66명을 대상으로 문자 읽기·쓰기·셈하기 등 일상에서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각 마을에 배정된 문해교육 교사들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서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문자 해독, 기초 산술 영역을 비롯해 편지쓰기, 금융활동, 핸드폰 활용, 체험학습 등 맞춤형 학습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10월 2019대한민국 마한문화제에서 열린 제3회 평생학습축제 전시부스에는 문해교육에서 한글을 깨우친 어르신들이 직접 쓴 시와 도자

기집시, 문패 작품 등을 선보이며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날 수료식은 학사모를 쓴 어르신들이 지난 6개월간 실시한 수업영상을 시청하고 수료증 전수, 수료생 기념촬영, 성인문해 전시를 관람하며 환희와 감동의 순간을 추억으로 간직했다.
수료생 김모(80세) 어르신은 "생활 형편이 어려워 한글을 배우지 못했는데 배움의 한을 풀고, 멋진 학위복도 입고, 수료증도 받고, 난생 처음 영화관도 가보고 진짜로 오늘이 내 인생에서 제일로 좋은날"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수료식 후 어르신들은 화순국화축제장을 찾아 화순시네마에서 한글을 막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들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영화 '질곡가시나들'을 관람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성인문해교육이 배움의 시기를 놓친 채 평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마을을 늘려서 더 많은 어르신 학습자들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함께하는 달빛동맹 일곱번째 이야기

달구별 빛고을 소통 + 나눔 + 기쁨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

달빛은 '달구별'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뜻하고, '소나기'는 소통 + 나눔 + 기쁨을 표현한 함축어로서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는 대구와 광주의 젊은이들이 만나 '소통하고 나누는 기쁨'을 얻는 화합의 행사입니다.

2019. 11. 23 SAT — 11. 24 SUN

대구광역시 일원

11월 23일(토) Part1. 달빛소통 14:00~18:00 탐방 프로그램 (예술발전소 & 청춘맨션 등)
Part2. 달빛나눔 19:00~21:00 개막식 / 멘토특강 / 달빛콘서트

11월 24일(일) Part3. 달빛기쁨 09:00~14:00 투어 프로그램(대구 근대문화로 골목 투어)

달빛소나기 광주지역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 지역문화콘텐츠 중사자 및 문화콘텐츠에 관심있는 열정적인 광주시민(20~39세) 모집기간 : 2019. 11. 19(화)까지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참가비 없음. 기념품 및 숙박제공 참가방법 : 이메일접수 saup@kwangju.co.kr 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41

주최·주관 광주일보 영남일보 후원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